

종단·단체 '개혁 틀 잡기' 부심

-교계는 유감스럽게도 송광사 국사전 16국사 진영중 13국사 진영이 도난당한 불운으로 1995년 문을 열고 불국사·석굴암, 해인사·필암대장경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쾌거로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또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1월27일 발생한 송광사 성보도난은 아직 범인은 커녕 성보의 행방조차 모연합니다. 이 사건은 불자들에게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불교문화재 관리 보존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성보도난건수는 총 24건(조계종)으로 회수는 거의 없고 지난 국정감사때는 국보의 10%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80%가 불교문화재인 만큼 불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있거나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련서적 늘어

-올해는 자료적 가치가 있는 책과 문화재 관련 책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 <한국과의 만남> 등이 그것으로 일본 문화재 그리고 일본 고대문화는 한국인에 의해 조성됐다는 것을 일본자료 등 현지조사로써 밝혔습니다. 또한 <할 짓는 사람> <돌부처> 등이 출간돼 작년에 이어 문화재 관련도서 출판성황을 이었습니다.

기자 방담... 한해를 돌아보며

취재1부	이경숙 차장 이준엽 차장 한명우 기자 김종근 기자 이은지 기자	김재경 기자 도필선 기자 오종욱 기자 고영배 기자 남수미 기자
취재2부	임연태 차장 정성운 기자 김원우 기자	대주주제 부산주제 박병근 기자

해를 빛내기 위한 기획전이보다 사찰불사기금미련 불우이웃돕기 자선전 등 개개행사에 '미술의 해'라는 명칭을 끌어들이는 거라 작품의 내용이나 행사 프로그램에 '미술의 해'를 빛내주는 의미가 전혀 안 드러났지요.

<대 고려국보전> <세계불교문화전> 등에 수십만 인파가 몰려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계불교문화전>은 내년까지 연장 전시하기로 했지요.

-조계종에서 주최한 미술의 해 기획전은 불교미술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전통 미술가와 창작 미술가간의 갭을 극명하게 보여준 전시회입니다. 창작 미술하는 사람은 거의 참여안해 종단에서 이러한 전시회를 그간의 갈등을 풀어 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문학계는 여전히 구도소설류가 주

점입니다. 방북문제는 총무원뿐 아니라 재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정부 불화로 무산됐습니다. 내년에라도 시작시킨 흥선 등이 있어 방북허가가 어렵지 않음에 전망됩니다.

실천승가회가 보광사로 이전하며 자체정화회에 들어갔고 전국불교운동연합도 조직개편을 모색했습니다. 선우도 람은 <신문으로 본 한국근현대사>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 내부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광불협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내부 역량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불사 회향 신도결집

-중앙승가대 이진문제는 각종 학교 인가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고 월주 총무원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내년 3월까지 이전해야 하지만 재원미련 등의 어려움으로 1년이 연기됐

페인 위주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고·진각·대원·법화·법륜·총화종 총무원장들이 교체되는 등 각 종단들은 개혁의 발판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봅니다. 태고종은 종헌 중립을 개정하고 3부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진기 50년을 맞는 진각종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획단 구성과 위덕대학 개교가 기대를 모으고 있고 천태종은 관수사 정광사 삼광사 등 대불사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눈에 띄게 급성장한 종단으로 총지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교사 고시 첫 실시

-지난해 조계종 사태가 사회이슈화되면서 관심이 크게 떨어진 현상이 올해도 이어져 신도단체들의 활동이 미약, 신행의 침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이라도 하듯 운팔월 불사가 풍성했고 전국적으로 오래 끌어 온 대현불사가 회향하여 신도들을 결집시키기도 했지요. 지난 2월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한국불교 재가회의'를 출범시켰으나 활동 평가가 내리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여성불자들이 주축으로 각종 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유난히 돋보였던 한해로, 자원봉사센터 개원 등 봉사의 전문화 체계화가 확산되고 청소년 봉사활동이 성적이 반영되는 등 불사에 대한 인식이 전국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된 한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불교관련 사이트가 급격히



◀첨단 영상포 교매체인 불교TV가 3월1일 개국돼 불자들의 신행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사진은 불교TV 개국 리셉션 모습.



◀한 총일 3개국 불교지도자 1천여명은 북경에서 만나 친선과 교류, 공동 사업추진 등을 합의했다. 사진은 월주 총무원장, 조백초 총장, 불교협회 회장, 나귀우리 전일본불교회장의 모습.



◀천태종은 종단의 발전자인 중국 국청사에 '천태종 조사 기념당'을 건립하여 한중 불교교류를 한층 두텁게 했다.

불교TV 3월 개국 '안방 부처님 시대' 열어 '미술의 해' 외화내빈... 불서출판 불황가속

올해 불교출판계의 성과라면 출판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사전의 편찬입니다. <선학사전>이 나왔고 내년에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대사전>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저작권협약에 따라 저작권법이 제정돼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 저작자들의 저작권도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20세기에 나온 작가들의 저작물은 대부분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일본불사를 많이 번역하고 있는 불교계의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 내년엔 학술서적 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올 한해 학술계는 과학중심보다 신행·계율·사찰경제·승가교육·환경 등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분야와 각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학술단체가 불교를 다루는 세미나가 많았고 사찰에서 불사회향 기념 세미나도 많이 열려 사찰행사에서 학술행사가 주요 부분으로 자리잡은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발표자의 겹치기 출연에 무성의한 논문내용, 토론이 활발치 못하고, 청중이 적어 민망한, 예전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세계불교문화전' 연장

-올해가 '미술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불교계도 불교미술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결과를 보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광주 비엔날레가 열려 일부 작가들이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했는데 그것도 개인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불교라는 그런 수준이라 유감스러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불자미술인들의 개인전 그룹전이 활발했으나 미술의



◀1995년은 유난히 사전 사고가 많았던 한해였다. 이를 거울로 삼아 내년은 좀더 희망과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모두 기원하고 있다.

'부다피아' '장경연구소' 등 불교정보 전산화 재가회의 출범·봉사센터 개원등 신행강화

목발았죠. 작년처럼 초 베스트셀러는 나오지 못했고 하반기에 운회사상이 뒷받침한 양귀자씨의 <천년의 사랑>이 호풍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이 9년부터 추진해 온 새 찬불가 1백곡을 마무리 해 큰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급하고 홍보해 널리 대중화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방북 정부불허로 무산

-올해 시민 운동단체는 크게 세가지로 특색이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지난 6월 한국통신 사태때 총무원과 재야 세력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또 하나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재야단체 스스로가 현실에서 자체에 대한 빠져진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증가하고 있어 첨단정보시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개가 넘는 단체나 모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곳이 바로 병원화된 포교원입니다. 21세기 포교청사전을 만들어 미래포교를 위한 초석을 다졌고 포교사고시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취약점으로 여겨온 청소년의 해로 지정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 해입니다. 실례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지난 6월 청정국토환경행사에 60여곳에 이르는 사찰·단체가 참여했지만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나 보여지고 대부분 캠프

증가하고 있어 첨단정보시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개가 넘는 단체나 모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인권 자비 정의 생활 불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이 트를 정리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어 아쉽지요. 따라서 우리 불교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통로도 없었는데 다량 '부다피아' '해인사 장경연구소' 등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려의 도성출입증이 풀린지 1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50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종단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 하나없이 무관심하게 넘어간 것은 아쉽지만 합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본지선정 올해년 교계 7대뉴스

불교TV 개국·BBS 지방국 확대

3월1일의 불교텔레비전의 개국은 교계에 본격 영상포교시대를 열어 주었다. 또한 2월1일 불교부산방송과 3월1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 청주 대구지역 불교방송 설립허가 등으로 교계는 첨단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포교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전파매체를 통해 불법을 대하는 불자들의 신행도 급격히 변화를 맞으며,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불교TV는 세번째 주시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미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교방송 대구지역 불교방송 설립허가 등도 교계에서 운영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 총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북방불교의 주역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친선과 교류, 3국불교발전,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는 한중 한일 또는 중일 등으로 관계를 맺어왔지만 지난 5월 22~23일 중국 북경에는 3국 대표단과 참관단 등 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을 펼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와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북경선언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제1차 불교우호교류회의에 이어 2차 교류회의가 내년 9월9일 서울에서, 3차회의는 97년 동경에서 개최 예정이다.

송광사 16국사진영 도난

1월27일 밤 송광사 16국사진영중 13국사의 도난은 성보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허점을 또 한번 드러냈다. 송광사 성보를 찾기 위해 종단과 경찰문화재관리국은 각각 최고의 현상금을 걸며 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범인은 커녕 성보의 행방조차 묘연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 사건은 불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불교문화재 관리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종단에서는 새해 예산에 성보실태 조사예산을 책정,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성보 문화재의 정확한 파악에 들어가며 정부도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80억원으로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 계기가 됐다.

불교자원 봉사단 발족

올해 최대의 사고로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은 자원봉사의 절실함을 일깨우는 현상이 됐다. 실종자 발굴작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제공 구호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여기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복령 등 단체와 구룡사 봉안산원 등 사찰의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다.

삼풍백화점 사고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자원봉사관리자 양성교육이 실시됐고 이들을 주축으로 불교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조계종 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교계 최초로 복지의 전반적인 자료·현황을 알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총람도 발간됐다.

한국불교 지구촌 포교 활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중국 절강성 국청사에 '천태종 조사 기념당'을 건립 지난 6월 17일 낙성법요식을 거행했다. 국청사는 중국의 4대명찰의 하나로 천태종의 발원지. 기념당안에는 천태 지자대사 고려 의천 대각국사, 천태종 중흥조 상일 원각대사 청통좌상이 봉안된 한중불교교류에 새장을 열었다.

이뿐 아니라 지난 6월에는 부처님 탄생지 네갈 룸비니에 대한 석가사가 기공됐고, 보도 가야 사르나트 쿠시나카라 등 인도 4대성지에 한국사찰이 건립됐거나 건립중이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를 세계속에 전파시키기 위해 국제포교사를 선발 해외전방에 나서게 하는 등 세계화를 향한 한국불교의 의지가 한층 커지고 있다.

고속철 경주 통과 반대 확산

한국불교 최고의 성지, 천년고도 경주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자는 운동이 불처럼 번지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으로 이제는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된 경주에 정부가 고속철도 관통을 관철시킬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저지하느라 불교계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경주노선 백지화를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교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문화재 관련단체들의 동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유물 유적을 마구 파괴하던 개발시대를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도 새로워지고 있다.

소적새 마을 사건 충격

지난 7월 MBC-PD수첩에 방영된 '소적새 마을' 사건은 불교계 복지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력'이 가장 승려라 했지만 많은 불자들이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력사건으로 인해 소적새 마을은 물론 여타 복지시설들도 후원자가 줄어드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사건 후 사이버 승려 일수에 대한 여론이 비등,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위장하에 개인 측재에 몰두하는 일부 문재있는 사설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잇따랐다. 한편 소적새 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암승가대학 교수와 스님의 비리가 밝혀져 중암승가대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불기 2540년(丙子年)
신년 축하 광고 안내

다사다난 했던 올해를 보내면서 새삼 삼보의 가르침에 두손모아 공경을 표합니다.
본지는 불기 2540년(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한해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신년축하광고
- 규격 및 단가
 - 1) 종단 : 가로 9cm×세로 17cm 기준, 25만원
 - 2) 본사 : 가로 85cm×세로 6cm 기준, 15만원
 - 3) 말사 : 가로 7cm×세로 4cm 기준, 5만원
 - 4) 불교관련업체 : 위 규격기준, 선택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 FAX (02) 737-0697

현대불교신문사